본 문서는 하나은행의 자산입니다. 행외 반출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Hana Bank **Market Daily** 자금시장영업섹션 2021.06.14

달러/원 환율

구분	USD/ KRW	NDF
평균환율	1111.20	-
시가	1113.00	-
고가	1113.00	-
저가	1109.80	-
종가	1110.80	1116.50
전일대비	-5.0	+5.80

거래량: 68.93억불(전일대비 -11.01억불)

EUR 및 JPY환율

구분	EUR / USD	USD / JPY
시가	1.2175	109.31
고가	1.2194	109.84
저가	1.2091	109.28
종가	1.2106	109.61
전일대비	-0.0068	+0.29

주식시장

구분	KOSPI	DOW
종가	3,249.32	34,479.60
전일비	+24.68p	+13.36p

- 외인 주식 수급 : 1,760억원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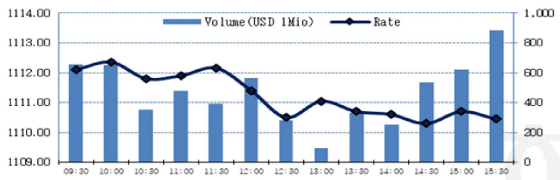
달러/원 환율 : 美 FOMC 대기 속 박스권 장세 예상

예상범위	금주 USD/KRW 1108.00 – 1122.00 금일 USD/KRW 1114.00 – 1120.00
전일동향	• 간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시장 전망을 상회하며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시장은 물가지수가 고점을 확인했다고 받아들임에 따라 글로벌 달러는 약보합하였고, 하락한 역외환율 반영하여 서울 환시는 전일 종가 대비 2.8원 하락한 1,113원으로 개장함. • 하락 출발한 서울 환시는 달러 약세 속 주요 통화 움직임에 연동하며 1,110원 초반으로 낙폭을 확대하였고 외국인도 이틀 연속 증시 순매수에 나서며 달러/원 하락에 힘을 보탬. 점심 무렵 1,109.8원으로 저점을 낮춘 달러/원은 1,110원에서 결제 수요 유입되며 하단 지지됨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다 전일 종가 대비 5원 하락한 1,110.8원으로 최종 장 마감함.
금일전망	• 예상치를 상회한 소비자 물가지수(CPI)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기대감으로 뉴욕증시는 상승 마감함. 전주 ECB의 비둘기파적 스탠스 재확인에 따라 유로화는 가파른 약세를 보였고 글로벌 달러는 강세 전환함. 상승한 역외환율 반영하여 금일 서울 환시는 1,110원 후반대에서 개장 예상됨. • 금일 달러/원은 금주 예정된 미 FOMC를 대기하는 가운데 1,110원 후반대에서 제한적 움직임 보일 것으로 전망됨. 금번 회의에서 테이퍼링 논의 여부에 따라 주요 통화 및 달러/원의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됨. 대형 이벤트 대기 속 적극적인 플레이는 자제되는 가운데 박스권 내 수급에 의한 장세 예상됨.

EUR 및 JPY환율 : 대형 이벤트 대기하며 신중한 장세 예상

예상범위	금일 EUR/USD 1.2070 – 1.2130 USD/JPY 109.50 – 110.00
전일동향	• 유럽중앙은행(ECB)이 통화정책회의 후 테이퍼링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유로화는 약세 전환하였고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아 전일 대비 0.0068 하락한 1.2106으로 최종 마감함. • 달러엔은 미국과 유럽의 비둘기파적 통화정책 스탠스 유지 기대로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전일 대비 0.29 상승한 109.61로 장 마감함.
금일전망	• 유로달러는 유로화 약세 지속되어 1.21달러 지지선을 하향 돌파하며 레벨을 낮출 것으로 전망됨.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완화 유지 기조 발표는 최근의 유로화 상승세를 반납하는데 힘을 보탤 것으로 보임. 다만, 금주 예정된 미 연준의 스탠스 확인에 대한 경계감은 하락폭을 일정 부분 제한할 것으로 보임. • 달러엔은 109엔 후반대로 레벨을 높일 것으로 예상됨. 시장은 테이퍼링 논의 여부에 주목하고 있어 급격한 움직임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글로벌 달러 강세 흐름 유지될 것으로 보임. 다만 110엔 돌파를 앞두고 신중한 모습 보일 것으로 전망됨.

일중 달러/원 환율 및 거래량 추이



금일 발표 예정 지표 (서울시간기준)

시 간	지 표	예 상	이 전
13:30	일본 – 4월 산업생산(전월 대비)	-	2.5%
18:00	유로존 – 4월 산업생산(전월 대비)	0.2%	0.1%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Hana Bank

박*은/0115206**/2021-06-14 08:57